

[기획] >> 3면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는 학생자치

[심층] >> 7면
얼어붙은 취업시장

[학술] >> 9면
모바일 신분증 시대

[인물] >> 12면
최영은 C막걸리 대표를 만나다

성큼 도래한 '언택트 시대', 우리학교의 준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언택트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1학기 비대면 수업 방식과 드러난 문제점△개선된 2학기 비대면 수업 방식△총학과 학생들의 반응
△다른 학교 사례를 통해 우리학교의 언택트 시대에 대한 대비 방법을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사진 김연수 기자100yeonsue@hufs.ac.kr

우리학교와 인천대, 특수외국어 교육 협약 체결해

이번 달 7일, 우리학교와 인천대학교(이하 인천대)는 특수외국어 진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인천대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1개의 특수외국어에 대해 비교과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달 14일부터 8주간 인천대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이란어△태국어△힌디어를 시범 교육한다. 이후 다음 해부터는 일반인에게도 11개 언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대진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장(이하 고 원장)은 “우리학교는 △기법 및 기관△다른 대학 학생△일반인△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며 “특히 국제도시인 송도에 위치한 인천대 소속 학생이 문화교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천대 글로벌언어문화원과 협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 원장은 특수외국어로 지정된 53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 인재 양성은 우리학교

만이 할 수 있다며 “참된 힘은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함께 공유돼 나아갈 때 진정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협약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외국어교육법)’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2018년 12월, 특수외국어교육법은 일반 국민에게도 다양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말레이·인도네시아어△몽골어△스와힐리어△우즈베크어△이란어△태국어 등 11개 언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선정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말레이·인도네시아어△몽골어△스와힐리어△우즈베크어△이란어△태국어 등 11개 언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01chae@hufs.ac.kr

우리학교,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우리학교 국제입학관리팀(이하 국제입학팀)이 ‘2020년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해당 사업은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 간 교류 촉진을 위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청소년진흥원)이 주관한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국 간 우호도 증진△우리나라 유학생의 한국 문화 이해도 향상△우리나라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증진에 있다.

우리학교는 ‘온택트(On tact) 시대의 세계 문화 교류 : K-Culture의 On&Off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약 60여 명의 내·외국인 재학생이 선발됐다. 이들은 11월까지 국가별 △K-Culture 관련 기관 방문△K-Culture 전파 현황 및 자국 문화와의 융화 방안 논의△국가 간 물리적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문화교류 방안 논의△팀별 활동 및 발표 등을 진행한다. 이후

우수활동자에게 여가부장관상 및 청소년진흥원 장상이 주어진다. 또한 우수활동사례는 청소년국제우수사례집과 교류네트워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제입학팀 관계자는 “우리학교엔 외국인 학생이 많고 그들의 국적도 다양하다”며 “이번 사업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이 신청을 했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될 경우 기관 방문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온택트(On tact):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 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가온네트웍스(주) 대표 이영도



우리학교 비대면 교원회의, 성공적인 첫걸음 내디뎠다



▲ 지난달 28일 열린 전체교원회의 모습



지난달 28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 백년관 10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처장단 회의 △교무회의 △전체교원회의 △교수협의회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웹엑스(Webex)를 통해 비대면과 대면 방식이 병행됐다. 회의실엔 우리학교 △교무행정팀 직원 △디지털서비스팀 직원 △본부 집행부 △처장단 등 총 28명만이 자리했다. 비대면으로 회의에 참여한 교원은 253명 가량으로 파악됐다. 대회의실은 회의

이전에 전체 방역을 마쳤으며 교무회의 이후 점심 시간에도 추가 소독이 이뤄졌다. 또한 발언자석마다 마이크를 따로 배치해 공유되는 일이 없었고, 마이크 덮개도 지속적으로 교체됐다.

회의 준비를 담당한 우리학교 글캠프 교무행정팀 관계자는 “준비시간이 촉박해 걱정이 많았다”며 “특히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교육지원팀 △디지털서비스팀 △정보통신팀 등과 많은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원격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됐기에 학내에서 좋은 선행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용애 글캠프 교무처장(이하 김 처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격회의를 총괄 감독한 김 처장은 이번 회의가 실시간 강의의 비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이전엔 교직원들 사이에서 원격회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며 “원격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공감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뒷

붙여 김 처장은 앞으로도 여러 행사가 원격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보였다.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우리학교 학생들 ‘2020 대학생 무역캠프’ 최우수상 받아

우리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GTEP 사업단)의 소속 학생들이 ‘2020 대학생 무역캠프’(이하 무역캠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GTEP 사업단에 속한 11명의 학생이 지원했으며, 그중 △문승현(통번역·아랍어 14) △문지환(경상·국제금융 15) △전예지(동유럽·루마니아 17) 학생의 조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당 조의 발표 주제는 이집트의 고질적인 수질 문제에서 착안한 ‘사위키 헤드’ 판매였다. 문승현 씨는 “이집트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 “모의거래의 형태였지만 바이어와의 미팅 등 실무에 가까운 경험을 해봤던 점이 의미가 있었다”며 “발표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무역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2020 대학생 무역캠프 우리학교 수상자들

무역캠프는 한국 무역협회(이하 무역협)와 산학협동재단이 함께 개최한 무역특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해로 12회차를 맞은 무역캠프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에 걸쳐 서울과 전주에서 진행됐으며 총 133명의 학생이 참여했

다. 3일 간의 사전 교육 이후 △모의 무역 실무 체험 △실무 서식 작성 △발표 등을 통해 조별 평가가 이뤄졌다. 박세범 무역 글로벌연수실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무역캠프에 관심 있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해엔 공고 일주일 만에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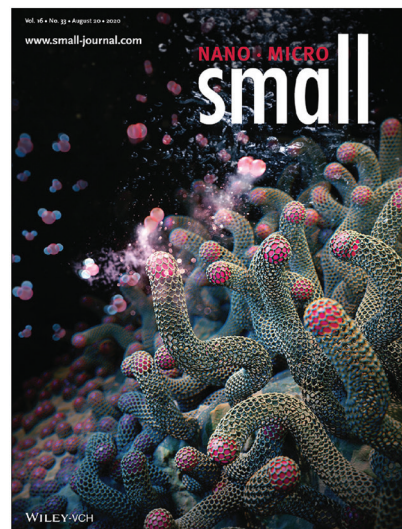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박진균 우리학교 교수, ‘수전해’ 새 촉매 소재 개발해

이번 달 7일, 박진균 우리학교 화학과 교수(이하 박 교수)와 정영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가 공동연구를 통해 ‘Co@N-doped CNT’란 촉매 소재를 개발했다. 이 촉매 소재는 수전해(water electrolysis)의 기술 상용화에 필수적이다.

수전해는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 인위적으로 수소를 발생시키는 ‘수소 생산 방식’이다. 그중 ‘알칼라인’ 수전해는 안정적으로 대량 수소 생산이 가능하지만 효율이 67% 정도 낮다. 반대 전극의 산소 발생 반응(Oxygen Evolution Reaction)에서 높은 전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전해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선 이때의 전압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촉매 소재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Co@N-doped CNT’ 촉



▲ 국제학술지 ‘Small’ 8월호

매는 장시간 반응에도 고유 특성을 잘 유지한다. 또한 전기 전도도가 높아 수전해 시 필수적인 전하이동을 용이하게 해 효율 증진에 도움을 준다.

박교수는 “정정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으로 학교와 국가 연구소 간 연구를 주도하며 걱정도 많았지만 기대도 많이 됐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 대해 “바로 상용화되기엔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많지만 화학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어 연구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의미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단 바람을 전했다.

지난달,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저명학술지(SCI) 중에서도 화학 최고 권위자인 ‘Small’의 표지를 장식하며 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재현 기자 01chaeh@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전기 입시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0.09.28(월) ~ 10.08(목)	2020.11.09(월) ~ 11.20(금)
고사장 발표	10.14(수) 15:00	11.25(수) 15:00
면접전형	10.17(토) 10:00 예정	11.2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28(수) 14:00	12.09(수) 14:00
등록 예치금 납부	11.02(월) ~ 11.06(금)	12.14(월) ~ 12.18(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족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증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중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국인),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d.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는 우리학교 학생자치활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학가 학생자치활동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부분 대면으로 이뤄지던 교내 학생자치기구 활동은 중지하거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이어나가는 상황이다. 양 캠퍼스 △단과대학 학생회△동아리△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적절한 방역 수칙에 따른

활동 방향을 정해나갔다. 학교 측은 교내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미 나실 및 학생 자치공간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캠퍼스 총학의 활동△단과대학 학생회 활동△교내 동아리 활동△합리적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양 캠퍼스 총학생회의 활동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학교 학생자치활동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 캠퍼스 총학은 지난 학기부터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을 병행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 ‘새벽으로부터’는 오프라인 회의 진행 시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은 실시간 온라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설캠 내 출입이 허용된 학생자치공간은 총학생회실뿐이다. 설캠 총학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생회실에 출입 명부를 비치해 방역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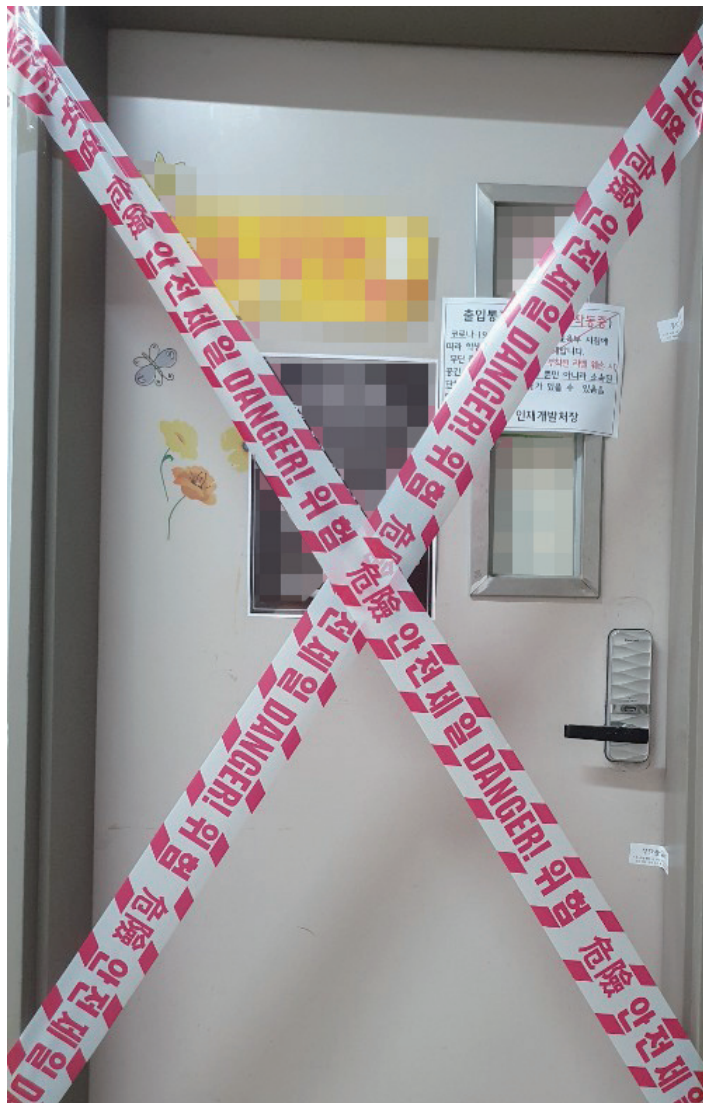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 ‘더 본(The 본)’은 참가 인원수와 회의 성격 등을 고려해 회의 방식을 결정한다. 일례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의 참여 인원수가 50명 이상이기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반면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는 단과대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학생이 참가한 소규모 회의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양 캠퍼스 총학은 예산 문제에도 입을 열었다. 총학은 학교 측에 미리 공문을 보내 그에 맞는 예산을 조달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난 학기 대면 행사가 모두 취소됨에 따라 행사 관련 예산에 차질이 생겼다. 김나현(서양어·프랑스 15) 설캠 총학생회장은 “이번 학기엔 비대면 행사에 집중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장원(자연·화학 17) 글캠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된 행사수습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었고 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토로했다.

◆단과대학 학생회 고충 토로

이번 해, 대부분의 단과대학 학생회는 비대면으로 활동했다. 일본학대학 학생회 ‘나루’는 대부분의 업무를 학생회실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학교 측에서 학생회실을 폐쇄했기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총학생회실을 빌리고 있다. 지난 학기 때 했던 배송사업 등 작업 공간이 필요한 일은 현재 진행하기 힘든 상태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함해’는 대면 행사에 상응하는 비대면 사업 구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민(사회·미디어 19)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행사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경상대학 학생회 ‘올인’도 지금까지 진행한 행사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연간 계획 수립과 이전 행사와 관련한 자체 평가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오신현(경상·국제금융 17) 씨는 “이번 학기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러 행사가 순조롭게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예산 운용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공과대학 학생회 ‘유나온’(이하 공대 학생회)은 할당된 학교 예산이 대폭 감소해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학기 공대 학생회는 학교 측에 교비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어대학 학생회 ‘모멘트(moment)’는 비대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예산이 원칙에 따라 사용된다고 전했다. 또한 영어대학 학생회로 할당된 교비는 영어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사용됐으며 학생회비는 재정 집행비로 사용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된 동아리방

◆교내 동아리 활동 현황

교내 동아리도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의 제약을 겪었다. 설캠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에 따르면 △응용기술분과△인문분과△종교봉사분과에 속해있는 동아리는 원격 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공연분과동아리는 △공연 시 객석 좌석 거리두기△공연장 내 50명 이상 출입 금지△소수 인원으로 연습 등의 방법으로 공연을 열었다. 또한 체육분과동아리는 단체 연습을 지양하고 개인 연습에 열중했다.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이 팀 강의를 받는 형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갔다. 다만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교외 활동 자체 공고를 내린 상황이다. 따라서 사실상 현재는 비대면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글캠 동연은 개별 동아리 측에 공식적인 활동 자체 공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양 캠퍼스 동연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의 각 동아리 신입생 모집을 걱정하고 있다. 중앙동아리는 매 학기 15인 이상의 회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학교 측으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동아리 존속 문제와 연관된다. 김한솔(서양어·스칸디 18) 설캠 동연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매 학기 열렸던 동아리 박람회를 대신해 온라인 동아리 박람회를 기획 중에 있다”며 “많은 학생이 학내 동아리에 대해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항상 각 동아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춰 빠르게 행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캠 동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돼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한탄 바람을 전했다.

◆학생자치활동 부흥을 위한 노력

설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업무는 우리학교 설캠 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지난 학기에 학교와 학생 모두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시간이었다”며 “학생회가 SNS에서 재학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향후에도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서도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지침을 준수한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캠퍼스 총학은 재학생과의 비대면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 설캠 총학은 최대한 학생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달 7일부터 온라인으로 우리학교 재학생의 공연을 볼 수 있는 행사 ‘방구석 중앙판’을 주최했다. 글캠 총학은 이번 학기에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재학생은 총학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얻게 됐다. 또한 글캠 총학은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양 캠퍼스 대부분의 단과대학 학생회는 SNS를 통해 비대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양어대학 학생회 ‘서로’는 서양어 대학의 8개 학과가 교류할 대중 사업 진행을 예고했다. KFL학부 학생회 ‘가온’은 학교 특성을 활용한 온라인 언어 교환 프로그램과 랜선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캠 동연은 온라인으로 동아리를 소개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제작해 비대면 홍보를 추진 중이다. 글캠 동연은 각 동아리의 자치를 응원하며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내 학생자치기구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채 앞으로의 활동 방안을 계획 중이다.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몇몇 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맞는 합리적 활동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1학년도 전기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20. 10. 5(월)~10. 12(월)	10.31(토) 10:00	11. 12(목) 14:00	11. 16(월)~11. 20(금)
일반전형	2020. 11. 9(월)~ 11. 13(금)	12. 5(토) 10:00	12. 17(목) 14:00	12. 21(월)~12. 28(월)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방법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 가. 다양한 교내 외 장학금 혜택
- 나.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 다.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성큼 도래한 ‘언택트 시대’, 우리학교의 준비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는 ‘언택트(Untact)’ 문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언택트는 접촉이란 뜻을 지닌 ‘콘택트(Contact)’에 부정의 의미인 접두사 ‘언(Un-)’을 합성한 용어

다. 이전에도 언택트 문화는 있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급격히 주목받고 있다. △1학기 비대면 수업 방식과 드러난 문제점△개선된 2학기 비대면 수업 방식△총학생회와 학생들의 반응△다른 학교 사례를 통해 우리학교의 언택트 시대 대비 방식을 알아보자.

◆1학기 비대면 수업 방식과 드러난 문제점

지난 학기 우리학교의 비대면 수업은 이클래스(e-Class)와 실시간 원격 강의 프로그램인 웹엑스(Webex)나 줌(Zoom)을 활용했다. 이 외에 △구글 클래스룸(Google-Classroom)△이클래스 강의자료란△이클래스 온라인강의란△케이묵(K-MOOC) 등에 강의자료나 영상 링크를 게재하는 방식도 존재했다. 이처럼 통일되지 않은 수업 방식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방침과 달리 일부 교수가 △강의안△PDF△PPT 등과 같은 시각 자료로 수업을 대체하거나 과거에 △게시△녹음△촬영했던 강의를 그대로 올린 경우도 확인됐다.

출석은 정해진 강의 시간에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전자출결 방식 매뉴얼을 비롯한 원격강의 지침을 공지했다. 원격강의 출결 관리는 △이클래스 출석 메뉴 활용△이클래스 강의 자료실 다운로드 여부 확인△이클래스 온라인강의실 학습 이력 확인△실시간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통한 QR 코드 인식 등으로 이뤄졌다. 기존의 대면 수업과 다른 출결 방식은 재학생의 혼돈을 가중시켰다. 우리학교의 비대면 수업 첫날인 지난 3월 16일엔 실시간 원격강의 수강과 과제 확인을 위해 한 번에 많은 학생이 몰리며 이클래스 서버가 마비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서버 자체에 접근이 불가능했고 접속이 지연되며 정해진 시간 출결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했다.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집단 부정행위 문제도 드러났다. 미네르바교양대학 S수업의 경우, 중간고사 도중 웹엑스 상에서 시험 문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미네르바교양대학 K수업에선 일부 학생이 단체 카카오톡 오픈 채팅 대화방을 개설해 시험 및 퀴즈 등의 답안을 공유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개선된 2학기 비대면 수업 방식

이번 달 1일, 우리학교는 전면 비대면 수업 기간을 다음 달 4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우리학교는 지난 학기 비대면 수업의 불편 사항을 일부 보완했다.

지난 여름방학, 우리학교 정보지원처 IT개발팀(이하 IT팀)은 이클래스에 신규 서버를 이관했다. 기존 이클래스 서버는 용량이 적어 한 번에 많은 양의 동영상 강의나 공지 사항이 게재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새로 서버를 이관하며 용량을 늘렸다. IT팀 관계자는 “이번 학기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클래스 서버 속도 개선에 더욱 힘을 쓸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교무처 교육선진화센터 교수학습개발부(이하 교개부)는 원활한 원격강의 운영을 위해 HUFSc 클라우드(이하 훅클)를 구축했다. 학내 교직원에게만 클라우드* 접근 권한을 제공한 다른 대학과는 달리 우리학교는 △교수△강사△직원△학생 등 모든 학내 구성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교개부 측은 우리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훅클 내 영상을 공유하면 CDN**비용이 발생하므로 학내 구성원만 사용하길 권장했다. 교개부 관계자는 “훅클을 통해 직접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 할 수

있어 편리하며 강의 영상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훅클 내엔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저작물’과 ‘클라우드스토리지’가 제공된다. 이를 활용해 여러 영상을 제작·편집할 수 있다. 또한 동영상이나 음원 등의 무제한 업로드가 가능하다.

우리학교 정보지원처 디지털서비스팀(이하 디지털팀)은 학내 전자 장비를 구축했다. 디지털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지난 계절학기 이후 모든 강의실 내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원격강의를 진행하는 교·강사에게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주고 있다.

원격강의 수업 방식에 대해 학종지 관계자는 “이번 학기엔 코로나19 상

예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장원(자연·화학 17)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장(이하 박 회장)은 지난 학기와 비교하면 학교 측이 비대면 수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것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졌다. 이에 이번 달 5일, 글캠 총학생회 ‘더 본(The Ben)’은 비대면 수업 피해사례를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장서영(동유럽·세크어 20) 씨는 “언택트 시대에 대한 우리학교의 준비는 비교적 나아졌지만, 아직도 △기술△재정△행정적인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의 사례

다른 대학교도 앞으로 다가오는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변화를 도모 중이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학사 행정 정보 문의에 특화된 개인 맞춤형 ‘중앙대학교 대화형 AI 챗봇’이란 인공지능 기반 언택트 서비스를 개설했다. 이에 강용성 인공지능 챗봇 기업 와이즈넷 대표는 “최근 언택트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인공지능(이하 AI) 챗봇이 언택트 학사 행정 서비스의 대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덧붙여 “앞으로 학사행정을 넘어 대학교와 대학원 등 교육산업에 특화된 비대면 챗봇 서비스가 점차 확산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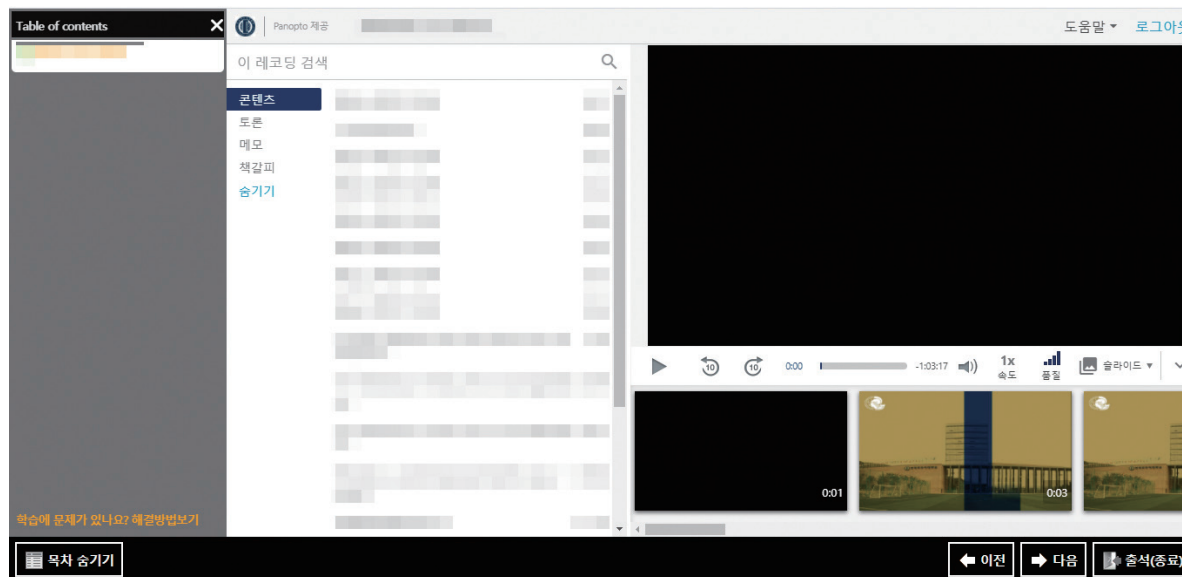
연세대학교는 지난 4월 27일 학부생에게 온라인 강의 수강을 위한 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원격강의 시행으로 인해 강의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노트북 및 태블릿PC 구입 비용 일부를 선착순으로 지급했다.

일부 대학교는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대)는 재학생이 온라인으로 △역량검사△인공지능 면접△AI 자기소개서 분석 등을 받을 수 있는 ‘AI 솔루션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온라인 취업 프로그램 ‘청파동 클라쓰’는 줌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법△채용동향△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NCS) 등의 수업을 진행한다. 숙대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진로 설정과 취업준비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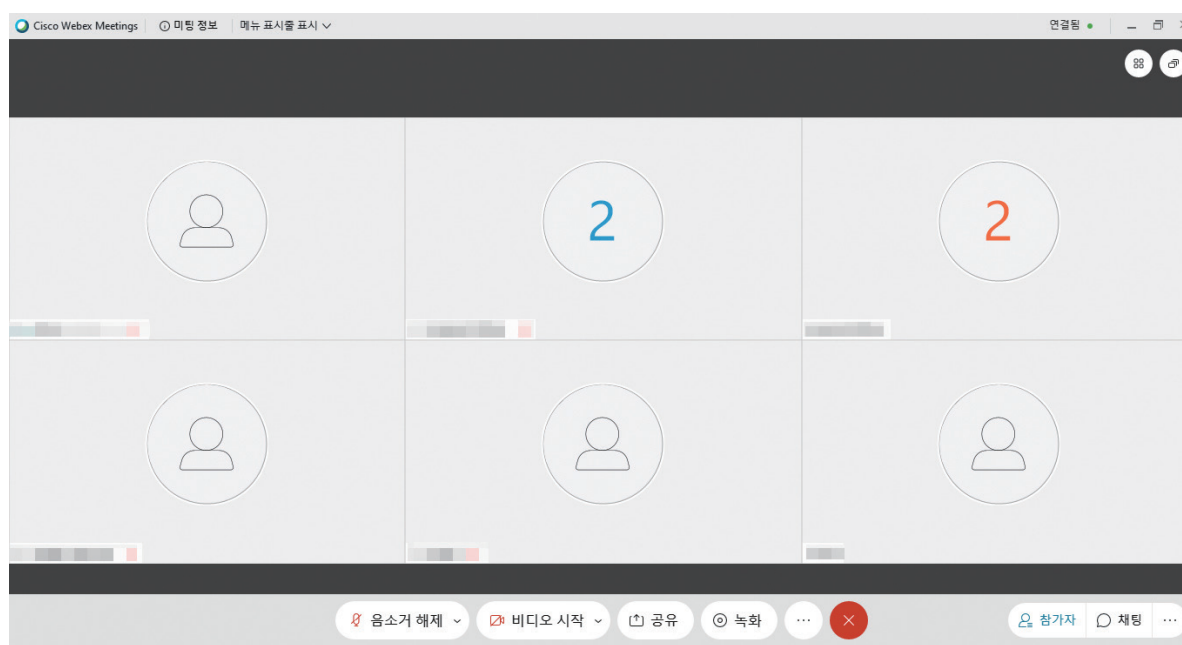
다른 대학교에도 언택트 시대 준비를 위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우리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더욱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클라우드 (cloud) :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

**CDN (Contents Delivery Network) :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HUFSc클라우드를 활용한 수업



▲웹엑스를 활용한 원격강의

향과 강의실 환경을 고려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려 했다”며 “약 70%의 강의는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장된 비대면 수업 기간과 계획된 비대면 수업에 대해 교·강사에게 실시간 수업과 사전 녹화 강의 업로드를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와 학생들의 반응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 측의 노력에 대해 김나현(서양어·프랑스 15)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 기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적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단 입장이다. 또한 장비 확보에 대한

저작권 의식,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이번 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온라인 강의 녹화본과 강의 자료 등의 저작권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이런 교육목적 저작물에 대한 논의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기 전부터 있어왔다. 이에 △대학 내 교육목적 저작물의 허

용 범위△교내 저작권 문제△우리학교의 입장△우리학교가 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 내 교육목적 저작물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이번 해 3월, 우리학교 교육선진화센터 교수학습개발부는 이클래스(e-Class)에 교육목적 저작물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이를 통해 “△영상△음성△PPT 등 모든 비대면 수업 강의 자료는 우리학교 학생을 위해 제작·게시된 것이므로 수업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수강생 외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강의의 일부분을 편집해 배포하는 행위 역시 지적재산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학생에게 저작권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저작권법 제24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저작권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 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을 표시해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통해 교수는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학 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저작권 위반 사례는 교재 불법복제다. 이에 관해 문화체육부 정책 담당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교내 저작권 침해 사례로 강의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이 인용될 때 그 출처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와 시중의 교재를 불법 복제해 배포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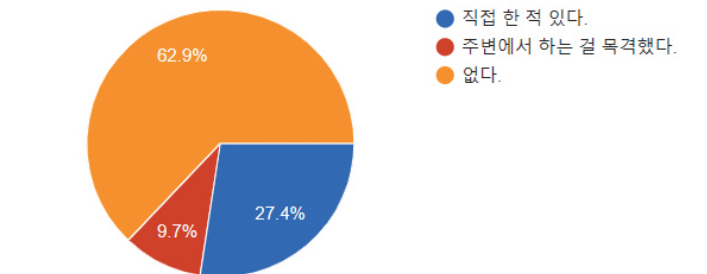
◆우리학교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까?

외대학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총 3일간 인스타그램과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저작권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저작권 침해 사례는 △온라인 강의 녹화·배포△교재 제본△과제 표절 등이 있었다. ‘이클래스(e-Class)에 올라오는 강의를 녹화하고 배포한 경험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37.1%의 학생이 직접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 강의 녹화·배포의 이유론 ‘나중에 복습할 때 수월하다’나 ‘주변에 강의 녹화 영상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유한다’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 대다수의 학생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고도 행했다. 김경린(중국·중언문 19)씨는 “시험기간에 수업 내용을 친구에게 물어보자 강의 녹화본을 공유해주려 했다”며 “강의 배포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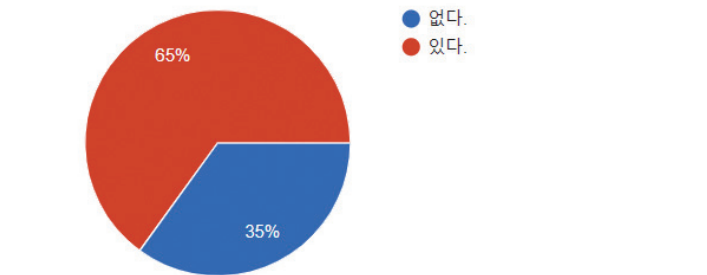
‘교재 제본 경험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5%였다. 교재 제본이 저작권 침해인지 모르고 행한 학생이 51.9%였으며 ‘제본 교재가 저렴해서 좋다’, ‘교재의 활용도가 떨어져 비싼 돈 주고 사

기 아깝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김도원(중국·중외통 20)씨(이하 김 씨)는 “전공 서적의 높은 비용은 대학생에게 부담이며 제본한 교재가 더 편하고 가벼워 그것을 구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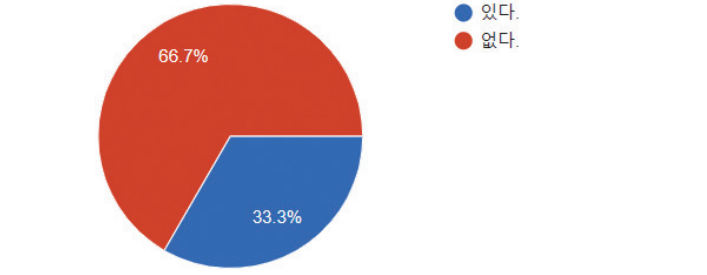
‘과제 표절로 인한 불이익을 목격하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



▲온라인 강의 녹화·배포 경험



▲교재 제본 경험



▲과제 표절로 인한 불이익을 목격하거나 받은 경험

에 응답자의 33.3%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9.8%의 학생은 출처 미표기가 불법인지 모르고 있었다. 일부 학생은 과제 작성 시 인터넷의 논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출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준영(경영·경영 16)씨는 “다른 학우가 리포트를 작성할 때 논문을 자신의 생각처럼 작성하다 걸려 최하점을 받은 경우를 많이 봤다”고 전했다.

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학교엔 교육목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현재 우리학교는 교육목적 저작물에 대한 이용 지침이나 별도의 교육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교수학습개발부는 “이번 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저작권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앞으로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다수의 학생이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인지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지식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리학교 중국외교통상학과 교수는 “실시간 강의 녹화본을 학생에게 배포하지 않겠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서 강의와 강의자료 배포에 대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고려대학교와 국민대학교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목적·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지침을 게시했다. 또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중부대학교는 이번 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생길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다.

비대면 수업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리학교의 바람직한 대응과 학생의 올바른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해 △공연△공중송신△복제△배포△전시할 수 있는 제도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전기 모집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0.09.18(금) ~ 10.05(월)	2020.10.30(금) ~ 11.16(월)
고사장 발표	2020.10.14(수) 15:00	2020.11.25(수) 15:00
면접전형	2020.10.17(토) 10:00 예정	2020.11.2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0.10.30(금) 15:00	2020.12.11(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0.11.02(월) ~ 11.06(금)	2020.12.14(월) ~ 12.18(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라. 문화언터테인먼트학과(문화언터테인먼트)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진학아플라이 www.jinhak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과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뒤돌아보면 그리운 곳, 몽골 생활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몽골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면 '초원이 넓게 드리워진 곳에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며 유제품을 먹고 게으르게 산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몽골의 겨울은 많이 추운지, 생활하기에 힘들진 않은지 등을 궁금해하기도 한다.

몽골은 최근 많은 사람이 꿈에 그리는 여행지로 꼽힌다. 하늘에 수없이 박혀있는 반짝이는 별과 가슴을 트이게 해주는 초원의 푸르름이 사람들을 이끄는 가장 주된 요인이다. 사막에서 지프차를 타며 멈추고 싶은 곳에서 멈추고, 지내고 싶은 만큼 지내는 낭만 여행을 꿈꾸는 사람도 많다. 결론만 먼저 말하면 각자 가진 몽골에 대한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몽골은 여행을 떠나기에 쉽사리 결심이 드는 곳은 아니며 지내는 동안 불편함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로망을 모두 다 실현할 거라고 장담할 순 없다.

나는 7+1 프로그램과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여름 연수를 통해 몽골에 두 번 다녀왔다. 7+1 프로그램의 경우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때문에 한 학기의 절반 밖에 지내지 못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했다. 몽골 유학을 결정한 이유는 나의 '유학생에 대한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꿈꿨던 것 중 어느 것도 하지 못했다.

두 달간의 짧은 유학 생활은 내게 속상함 이외에 남긴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돌아보니 짧은 기간 동안 스스로 많은 걸 깨우칠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라인 과제를 하고 하루 종일 실내에서 보내는 일상이었지만 종종 맛집을 탐방하러 다니는 것은 큰 재미였다. 지금 당장이라도 차려주면 먹고 싶은 것은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광장(Sukhbaatar Square)' 옆에 위치한 캐시미어 물 4층 식당 'little sheep'의 사브사브다. 고기는△말고기△양고기△소고기가 있고 육수 베이스도△마라△버섯△사골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조합해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양고기를 좋아한다면 양꼬치나 양갈비도 시도해보는 걸 추천한다. 육질이 아주 좋고 비교적 싼 가격에 잘 조리돼 나온다.

여름에 몽골을 가게 된다면 '테렐지(Terelj)'에 잠깐 머물러 보는 걸 추천한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말을 타고 산책하며 염소와 양들을 따라다니는 것도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아쉬움이 가득한 몽골에서의 짧은 유학생활이었지만 그만큼 다시 가고 싶단 소망을 남긴 경험이었다. 다음엔 훨씬 더 성장해있을 내 모습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 데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세상에 실패하는 유학 생활은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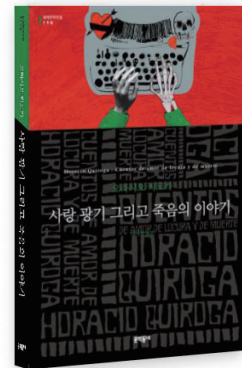
글·사진 장지혜(아시아 · 몽골어 18) 제공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먼저,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야 했기 때문에 자립심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 깨달을 수

우루과이

<사랑 광기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 - 강렬하고, 강렬하다 -



지난달 20일, 18개의 단편이 실린 소설집 '사랑 광기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가 출간됐다. 출판사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우루과이 작가 '오라시오 키로가'(이하 키로가)의 책이다. 키로가는 근대 단편소설의 거장이자 라틴아메리카 환상문학*의 선구자로 손꼽힌다. 그는 인간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다.

이 소설집의 세 주제인 △광기△사랑△죽음은 강렬하게 다가온다. 우선 사랑을 살펴보자. 키로가가 생각하는 사랑은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의 작품 '사랑의 계절'과 '엘 솔리타리오'에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소설집에서 '뇌막염 환자와 그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속 사랑만이 거의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랑은 뇌막염으로 인한 착란 증세의 광기 속에서 가능하다. 이로써 그의 작품에서 묘사된 모든 사랑은 비극적이다.

광기는 키로가의 핵심 정체성으로 볼 수 있다. 대표작으로 불리는 △'깃털 베개' △'목 잘린 닭'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드는 배'에선 사람의 불안한 심리가 섬세하게 묘사된다. 신희 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진 여자는 환각에 시달리고 어떤 배에 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살하고 만다. 부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세 아이를 방치하고 비장애인 아이에 집착한다. 이들의 행동은 광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이 광기의 끝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식인 개미 떼에 잡아먹히는 이야기인 '천연 꿀'과 뱀에 물려 죽음을 맞는 '표류'는 키로가의 죽음에 대한 운명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런 환상문학이 나올 수 있던 배경엔 키로가의 불운한 삶이 있다. 키로가는 태어난 지 두 달이 됐을 때 아버지의 사망을, 열일곱이 되던 해엔 의붓아버지의 염종 자살을 목격한다. 이후 스누나스친 구△형마저 이른 죽음을 맞는다. 이런 상황은 키로가가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그에게 살아간 죽음을 피하기 위한 끝없는 투쟁 과정이며, 죽음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 소설집이 환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쉽게 이입할 수 있는 이유는 삶과 죽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사회에 확산하며 우린 다시 집이란 한정적인 공간에 갇히게 됐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벗어나 키로가의 환상 문학으로 도피해보는 것은 어떨까. 인간의 운명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것은 덤이다.

*환상문학: 현실을 반영하는 요소보다 가상적이고 비사실적인 요소 등으로 상상력이 강조된 문학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글로벌캠퍼스 설립 40주년 기념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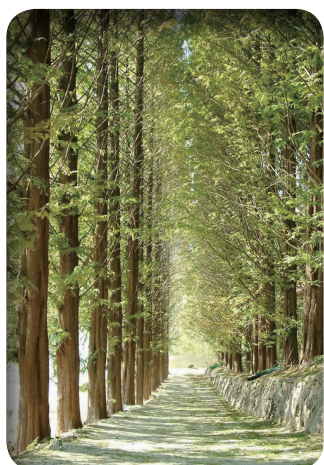
Global HUFS' tory ②

자연과 함께 상생하는 친환경 캠퍼스

- '글로벌캠퍼스 명수당과 망각의 숲'



▲글로벌캠퍼스 명수당 전경



▲글로벌캠퍼스 망각의 숲



▲글로벌 캠퍼스 명수당 변천(1980년대~2010년대)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에 위치한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는 전체가 녹음으로 둘러싸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공간이자 환경친화적인 배움터다. 이런 수려한 자연경관의 중심엔 명수당(明水塘)과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다.

캠퍼스 한가운데 위치한 명수당은 1986년 9월에 조성돼 현재까지 지역주민과 재학생의 쉼터이자 글캠을 대표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명수당의 이름은 중국의 고전 '장자(莊子)'에 나



▲대동제 명수당 레프팅 이벤트(2008)

오는 '명경지수(明鏡止水)'의 구절을 따 붙여졌다.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란 뜻의 글귀와 작명의 의미 속에 재학생이 사사로운 생각 없이 늘 깨끗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우리학교의 바람이 담겨 있다. 매해 학과 개·종강 총회 때면 명수당 주변 잔디밭은 재학생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며 축제 기간 중엔 레프팅 장소로도 활용됐다.

재학생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답게 명수당엔 다양한 에피소드가 전해진다. 명수당의 수심이 생각보다 깊은 탓에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1999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유감 중요무형문화재 104호 보유자가 '서울새 남곳'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학생 사이에선 "명수당에 빠지면 온갖 잡념이 걸린다"란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온다. 그러나 사실 쉬리 등의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명수당의 수질은 비교적 깨끗한 2급수라고 한다. 2014년 2월

발표된 생명과학과 연구에 따르면 명수당에서 기존엔 없던 새로운 미생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명수당 뒤쪽에 높다란 키를 자랑하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모여 있다. 이 길은 일명 '망각의 숲'이라 불리는데 사실 숲이라기보다는 △교양관△명수당△자연대 옆 세화관을 이어주는 길에 가깝다. 이곳은 시험 기간에 걸으면 외웠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 망각의 숲이라 불린다. 망각의 숲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망각의 숲이 글캠보다 먼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 나무들은 캠퍼스가 들어서기 전 1970년대 말까지 '태양목장'이란 이름의 사슴·오피계 농장에서 조성한 것으로 1980년대 초반 건립 당시 사진이나 조감도 등을 본다면 높이 솟아오른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을 가릴 듯 높게 솟은 메타세콰이어 나무 사이로 언뜻 보이는 명수당의 풍경은 누구나 한 번쯤 감탄할만한 고즈넉함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으로 비대면 강의가 진행돼 있어 캠퍼스 자연경관을 즐길 기회조차 없지만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 줄 수 있는 캠퍼스 속 자연 경관을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

*외대 역사관에서는 그 시절 추억이 담긴 서울캠퍼스와 미네르바 동산 관련 사진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동문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증 문의·외대 역사관 : 02-2173-3981)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승자 없는 의사 파업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달 4일, 대한의사회(이하 의협)와 정부는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해 일어난 전국적인 의사 파업이 시작된 지 17일 만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대 규모로 발생한 이번 의료계 파업은 양쪽 진영에 각종 갈등과 논란을 야기했다. 의사 파업이 발생한 원인과 진행 양상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계 파업의 원인과 해외 공공 의대 사례

의료계 파업은 이번 해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 정책에서 기인했다. 해당 정책은 △의과 대학 증설 및 의대생 증원△원격 진료△한방 협약* 급여화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높아져 가는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의료 개혁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민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약 2.4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보다 낮다. 또한 병원 및 의사의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공공의료 정책의 필요성이 수년간 제기됐다. 정부의 정책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 의대는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총 4,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간 모집인원 400명 중 300명을 ‘지역 의사제’로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중증 분야에 의무 종사함으로써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 단체의 입장은 정부와 상이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가 계획한 의료 개혁정책의 대다수는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의사가 내과·흉부외과와 같은 특정 과와 지방을 기피하는 원인인 ‘의료수가 조정’과 ‘지방 인프라 확충’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언급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각각 반박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는 10km²당 10.44명으로 세계에서 3번째다. 이는 단위 면적 당 높은 의사 밀도를 보여준다. 의협은 환자가 의사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단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의견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공 의대 신설에 관해선 문제의 이해 관계자인 의사를 배제한 채 협의한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은 의사 증원 인원만 구체적으로 결정했을 뿐 이외엔 확정된 것이 없어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나아가 공공 의대의 선발 및 관리를 국가가 감독·주도해야 하는 특성상 재정적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한방 협약 급여화는 한약의 효과와 안전성의 검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 비판했고, 원격 진료는 의료법상 대면 진료가 원칙이므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정책은 일본의 ‘자치 의대’ 정책과 유사하다. 일본은 의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1972년 자치 의대를 설립했다. 자치 의대는 우리나라 공공 의대 계획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국가 관리하에 정부가 지정한 지방에서 9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제도다. 2018년 기준으로 출신 지역에 정착한 의사 비율이 68%를 차지해 권역별 의사 수 불균형 문제를 완화했던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자치 의대와 우리나라 공공 의대의 차이점은 교육형태에 있다. 자치 의대는 6년 과정의

의대이고 공공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다. 또한 자치 의대에서 간호사 양성이 이뤄진단 것도 다르다.

◆상처뿐인 갈등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때도 의료계 파업이 대규모로 진행된 적 있다. 의약분업 파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사의 의약품 조제를 규제하는 정책을 내자 의사 집단이 반발하며 시작됐다. 약 6개월 동안 이어져 전국의 2만 개 병·의원 중 70%가 참가한 대규모 파업이었다. 당시 의료대란이라 불리며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지만, 지금만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현재 의사의 공백은 의료 시스템의 중추인 전공의** 대규모 이탈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곧 국가적 붕괴 위기로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발표 직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곧이어 지난달 7일 전공의 일일 집단 휴진, 14일 의협 1차 총파업을 진행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위기를 느낀 정부와 의사 단체는 1차 파업 후 곧바로 긴급회동에 들어갔지만 아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완전 무효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부는 정책 기조 유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양측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의협은 전문의 단체 휴진 및 2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21일, 일부 전공의 파업을 시작으로 23일엔 모든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6일엔 예정된 의협 2차 총파업이 진행돼 한순간에 의료 시스템이 마비됐다.

의사 집단의 행보에 정부 역시 맞불을 놓으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보건복지부는 파업에 참여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후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10명을 고발해 양측의 갈등은 고조됐다. 정부와 의사 단체가 대치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다. 의료 공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속출했고 많은 사람이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나아가 정부와 의사 집단 모두 파업 기간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보건복지부가 SNS에 게시한 공공 의대 선발 과정의 ‘공공 의대 후보생은 의료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뽑힌다’란 항목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간호사 위로 글이 일각에선 의사와 국민을 갈라놓기 위해 올린 정치적인 글이라 주장해 그 의의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의협은 SNS에 게시한 공공 의대 관련 글에서 기존 의사 집단의 선민의식이 드러난 주장을 펼쳐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번 달 4일, 끝을 모르던 파업의 양상은 정부와 의협이 극적으로 합의

하며 일단락됐다. 뒤이어 7일, 대전협 역시 파업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의료계 파업은 19여일 만에 종료됐다.

◆임시 봉합된 사태, 해결방안은?

극적으로 합의된 협상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의협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 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 정원 및 공공 의대 확대 논의 중단 후 협의체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 등이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의료 개혁의 초점을 의사 수가 아닌 권역별 공공병원 설립에 맞춰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통해 의사가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 의료계는 이번 파업이 그동안 쌓여온 의료계 문제를 드러냈다고 말한다. 김동은 계명대학교 교수는 “파업이 과열되며 의사 집단이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매우 미숙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실패한 의사 집단에 대해 국민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전문가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질타를 받았다. 공공 의료의 명분과 필요성은 정당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독단으로 처리한 행위는 대규모 의료계 반발의 원인이 됐단 지적이다.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이하 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 강화△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지역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등은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들인데 정부는 그걸 다 모아서 의사를 늘리면 된단 것으로 끌어안고 가려고 했다”며 “이를 두고 의사는 충분한 보상 없이 추가적인 희생만 요구한다고 해석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정책 당사자인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의료 문제가 무엇인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게 먼저다”며 “명확한 진단 없이 의사 수가 부족하거나 많단 이야기만 하면 논쟁은 계속된다”고 전했다. 즉 의료개혁이 △국민△정부△의사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협약 :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어서 약봉지에 쓴 약

**전공의 : 전문의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저작권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창작자의 생존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를 통해 저작권을 바로 알리기 위한 저작권 퀴즈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당첨자 50명에게 문화상품권(1만원)을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퀴즈 이벤트

- 기간 : 2020. 6월 ~ 12월 (주1회)
- 문제 : 00000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점자도서관 등의 복지시설이 비영리 목적으로 책을 녹음하거나 점자로 변환하는 일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재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00000은 무엇일까요?

※ 퀴즈 응모·당첨자 발표:매주 월~목요일 보호원 누리집(<https://www.kcopa.or.kr/>) 접속해 응모, 당첨자는 금요일 발표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누군가의 이정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다. 그리고 내 글과 말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길 바랐다. 학창 시절에 작가를 꿈꾸며 신춘문예에 글을 내기도 했고 시사토론부에서 토론하며 가치관을 정립했다. 역동적인 삶도 꿈꾸었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경험을 글로 녹여내고 싶었다. 그래서 자연스레 작가의 꿈을 가졌다. 다채로운 삶을 지향하던 내게 작가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시를 거치며 모든 꿈이 퇴색되고 남은 지향점은 급전적인 여유와 안정적인 직장뿐이었다.

입대를 앞두고 다녀온 네팔 여행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네팔에서 △멕시코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세계 각국의 포레 친구를 만나 살아온 환경을 공유했다. 지진에 무너진 초등학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 같이 벽돌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네팔 아이들에게 컴퓨터 활용법과 리코더 연주를 가르치며 일주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이 됐다. 다들 고생했다며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 장래희망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했다. 호주에 사는 친구는 유치원을 차리고 싶어 5년 동안 배관공 일을 해 돈을 모았다. 멕시코에 사는 친구는 캠핑이 좋단 이유 하나만으로 인도에서 네팔을 거쳐 중국까지 배낭여행을 하고 있었다. 모두가 행복한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할 때 나는 꿈꾸던 미래에 대해 멍멍하게 얘기하지 못했다. 추구하고 싶던 삶의 방식도 아니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는 정말 좁았다. 많은 사람이 안정적이라 믿는 길을 걸으며 그들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코딩을 하면 취업이 잘된단 말을 믿고 적성과 맞지 않는 수업을 들으며 종일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방황했다. 평범한 직장고 결혼이 가져오는 평화로 행복해질 수 있던 자기합리화를 하며 살았다.

여행을 다녀온 후,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역동적이며 영향력 있는 일을 찾다가 기자란 직업을 꿈꾸기 시작했다. 작가와 기자는 차이점이 있다. 작가는 자리에 앉아 본인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만 기자는 기삿거리를 찾아다니며 글을 쓴다. 발로 뛰며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기사를 쓰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쓴 글이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글로 각인되길 바랐다.

그 후 기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외대학보 모집 글을 우연히 발견했다.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사실을 깨닫고 복학 후 다시 지원했다. 학보사를 통해 우리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을 취재하며 학교 본부와 소통하고 싶었다. 더 나아가 우리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며 학생들이 만족감을 느끼길 원했다. 부른 꿈을 안고 들어간 학보사에서 인터뷰를 하며 기사를 쓰고 신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했다. 내 삶의 이정표가 정해졌단 확신 때문에 밤을 새우고 기사를 편집하는 일이 힘들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이정표가 돼 그 사람의 삶을 이끌고 싶다.



김현의 기자

[책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을 읽고] 세상의 모든 사랑이 무사하기를

“네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이 구절은 소설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주인공 ‘진술’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 소설은 흔한 사랑 이야기를 흔치 않은 감성으로 풀어낸다. 평범한 방송작가 진술의 프로그램에 평범한 방송 PD ‘건’이 투입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들은 서로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며 업무적 관계를 넘어선 친구가 된다. 그러던 중 진술은 자신이 건을 사랑하고 있던 사실을 깨닫는다.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얘기해 본 적 없는 진술은 웬지 모를 순간적인 감정으로 건에게 고백까지 하게 된다. 건 또한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진심을 깨닫고, 두 사람의 행복한 일상을 끝으로 소설은 막을 내린다.

작가는 진술과 건을 일상적인 인물로 설정한다. 그들은 고된 업무에 치이고 상대의 사소한 행동에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 현실적인 인물 설정은 독자가 소설을 감상하며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게 한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진정한 사랑도 누군가에게 낭만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중 감기에 걸린 두 사람이 한 명의약을 나눠 먹는 장면이 있다. 진술이 “누구는 콧물만 났고, 누구는 기침만 났게요?”라 투정하자 건은 “뭐가 중요해요?”라며 “나눠 먹는 데 의미가 있지”라고 답한다. 이 장면은 일상 속 우치한 대화를 통해 두 사람만이 가진 감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타인이 봤을 땐 별 것 아닌 일이 그들에게는 사랑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해당 소설의 결말은 사람들 사이 상이한 감성을 이끌어낸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이 소설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하지만 일부 독자는 두 사람의 사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을 이유로 진술과 건의 사랑이 진정하지 않다고 평한다. 사랑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것이다. 미디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는 ‘작품 속 주인공이 진정한 사랑을 했을까?’란 물음에 답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에 비해 진술과 건의 진정한 사랑은 진정성에 의심받는다. 그럼에도 작가는 이들이 진정한 사랑을 했다고 표현했고 이는 독자가 사랑의 의미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사랑이 가진 진정성과 사랑의 온도가 모두에게 항상 정비례하지 않는단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랑에 관해 특별하고 개인적인 기억을 갖는다. 그 기억이 사랑했던 상대의 표정일 수도 있고 그날의 옷차림일 수도 있다. 심지어 당시의 냄새가 기억에 남을 수도 있다. 타인에겐 잔잔한 일상 속 별 볼 일 없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신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다.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은 그 자체로 빛난단 사실을 환기한다.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보고] 내 딸을 뺏어가면서, 내게 도와달라니

젊은 엄마가 딸을 모텔방에서 키운다. 그는 변변한 벌이가 없어 방세를 밀린다. 딸에게 제대로 된 장난감도 사주지 못한다. 되려 6살짜리 딸의 앞에서 담배를 피고 욕을 한다. 결정적으로 그는 방값을 내기 위해 딸이 있는 방에서 성매매를 했다. 이런 아동학대의 정황을 알게 된다면, 해당 여성과 자녀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이에게 폭력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이고 우리의 자명한 합의며, 윤리다. 하지만 앞서 묘사된 상황에 놓인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본다면, 딸 ‘무니’와 엄마 ‘헬리’를 떼어놔야 한다고 말하긴 쉽지 않다. 도식화된 시스템이 복잡한 인간 군상을 모두 품어낼 수 있는가. 약자는 사회가 강요하는 ‘정상성’ 속에서 어떤 고통을 받는가. 영화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다.

헬리와 무니는 단순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뛰어넘어 연대한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잘 읽으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 둘은 경제적 약자임과 동시에 여성이기에 처한 여러 혐오와 위협을, 위와 같은 연대를 통해 헤쳐나간다. 비록 그 방식이 서툰 한나 관객은 영화를 보는 내내 헬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느낄 수 있다. 그와 무니의 교감이 결결이 느껴지다 보니 선뜻 헬리를 나쁜 엄마라 비하하기 어렵다. 이런 감상이 영화 초반부터 누적됨에 따라 관객은 무니를 보호하러 온 아동인권국 직원을 ‘악당’으로 인지하기에 이른다. 평소에 반사회적인 사상을 지지해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거대하고 근본적인 합의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선 베이커 감독은 △무니의 시선 △빠른 내용 전개 △익숙한 공간의 활용 등을 통해 끊임없는 몰입을 유도한다.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러선 부조리한 상황을 몰아치듯 보여줘 관객이 모순을 직시하도록 만든다. 서사는 헬리의 분노로 정점을 찍는다. 아동인권국 직원이 헬리에게 흥분한 무니를 진정시켜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크게 화를 낸다. 절차와 구조에 매몰된 직원이 딸을 데려가도록 도와달란 요청을 그 엄마에게 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통해 관객들은 시스템과 우리의 실제적 삶 사이에 괴리를 발견하게 된다. 우린 약자에게 적당히 귀 기울이는 척하지만 정작 삶의 경계에서 혈떡이는 이들에게 등을 돌린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존재가 사회 시스템의 허점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린 어떤 역할을 맡아왔을까. 감독은 ‘바비’란 인물을 통해 이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모텔의 직원인 바비는 약자에게 적당하게 공감하며 적당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바비는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방관자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가 도덕이란 이름으로 정당화시킨 시스템에 의해 약자는 상처받을 수 있다. 우린 약자에게 적당히 귀 기울이는 척하지만 정작 삶의 경계에서 혈떡이는 이들에게 등을 돌린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존재가 사회 시스템의 허점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밝은 빛으로 가득한 디즈니랜드 옆에, 어둠 속에 웅크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부조리를 제대로 여겨려야 한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되새겨볼 필요도 있다. 우린 정말 모든 것을 빈틈없이 이해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되려 폭력을 행하고 있진 않은가.

이준성 기자 100leesj@hufs.ac.kr

1046호 학보를 읽고

코로나19 시대 우리학교의 모습

수강신청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개강 첫 주가 지나갔다. 코로나19 이전의 캠퍼스는 푸른 가을 하늘과 설렘 가득한 재학생의 장이었을 테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 유지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연속된 대풍처럼 어지러운 이 시국의 우리학교 모습을 외대학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강과 함께 불거진 수강신청 문제는 여전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학기 수업방식 결정 과정은 학생들의 불만을 샀다. 지난 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장학금 지급은 성적장학금 축소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번 외대학보는 학교 예산 부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학교 재정 문제는 비리와 관련한 사안이다. 이로 인해 우리학교는 학생의 신뢰를 잃은 만큼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학생 주거 문제에 대한 배려 없는 대면 공지의 실상 또한 잘 드러나 있다. 이는 다른 대학 사례와 비교해 우리학교의 처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비대면 수업과 절대평가 시행으로 인한 낮은 성적 변별력이 성적장학금 금액 조정으로 이어진 이유도 기사를 보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다. 성적 평가 방식 이슈에 대한 총학생회

및 학생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으며 절충안을 적어 앞으로의 방향성을 다뤘다.

이번 호에선 불가리아로 현장실습 인턴을 간 학생의 수기가 여러 학생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학교의 이점이라고 하면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읽을 것이다. 새내기도 꼭 경험하길 바란다 단 당부가 많이 전해졌으면 한다.

우리학교 소식 외에 최근 논란이 됐던 유튜브 뒷광고 쟁점에 관한 기사도 있다. 기사 내에선 뉴미디어의 수익 구조 문제가 법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단 점이 언급됐다. 뉴미디어 수익 구조 창출의 문제점과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기만행위는 우리에게 밀접히 관련돼 있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소정 KBS 메인 앵커의 인터뷰는 언론인을 꿈꾸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에게도 힘이 돼 좋았다. 이번 호를 읽으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편성과 2학기 대면 여부 문제부터 사회적 이슈인 뉴미디어의 뒷광고 논란까지 다룬 다양성이 외대학보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다. 1046호를 발행하기 위해 애쓴 기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음에 더 좋은 글로 만나길 바란다.

박혜민(아시아 · 태국어 16)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46호 학보를 읽고

새로운 세상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도 깨진지 오래다. 우리 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화진 자등의 생명현단어가 일상어가 된 것은 물론, 불편하면 마스크는 종종 안락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학교생활도 그러했다. 어컌하기만 하던 비대면 강의와 텅 빈 캠퍼스의 생경함이 익숙함으로 변모해갔다.

익숙함이 찾아오니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여러 문제가 뚜렷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학기 개강호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우리학교의 여러 문제를 조망한다. △성적평가방식 △수업방식 △장학금 등 코로나19 사태로 우리학교 학생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로 인한 문제는 이번 학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모두 코로나19 안팎에 기두가엔너무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것이다.

3편의 기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직면한 학교의 전반적인 대처방식을 다룬다. 지난 학기와 같이 2주마다 비대면 기간 연장을 통보하던 공지가 반복됐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분명함에도 대면 수업을 병행할 지 모르는 학교의 얼굴은 낯설지만 익숙하다. 코로나19 안팎 특수상황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지만,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우리학교의 학사운영은 오랜 기간 재학생의 문제제기에 침묵으로 답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재학생의 목소리도 마른가시졌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편성에 대한 논란으로 말문을 연 기획기사는 재학생에게 친숙하지 않은 법인의 책임을 물으며, 재정난에서 벗어나려는 학교 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드러낸다.

또 하나의 문제인 수강신청은 매 학기 재학생에게 우려와 좌절을 안

겨주며 이전에 비해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한 심층 기사에선 혼재된 수업방식과 표기 오류로 인해 더욱 심란했던 이번 학기의 상황을 전달하며 수강신청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기사에서 제시된 다른 학교의 바람직한 사례가 대안이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원망과 체념이 아닌 더욱 강력한 수업권 요구를 위한 투지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번 호에선 새로운 코너도 만날 수 있었다. 국제면의 신설 코너인 어서와 해외는 처음이자 애선 우리 학교의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불가리아에 다녀온 학생의 수기를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에 나가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풀어낸 글과 불가리아의 경관이 담긴 사진은 낯설지만 달콤한 외국으로의 유학 생활을 맛볼 수 있게 해줬다. 우리나라의 신간 도서를 소개하며 첫걸음을 디딘 ‘읽어서 세계속으로’ 또한 앞으로 어떤 국가의 책을 다룰지 기대된다.

당연하던 모든 것이 낯선 요즘, 변함없이 발행된 외대학보는 참 위로가 되는 존재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개강호를 발행한 외대학보의 모든 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자구의 모든 사람이 뿌연 안개 속에 던져졌다. 우리는 속절없이 흔들리며 본적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모두가 이 길 위에서 단단히 견뎌내길, 그래서 웃으며 이 고난의 시기를 추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한다.

천혜진(인문 · 철학 18)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만남은 줄이고 소통은 유지하는 시대

국·부장 고정칼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사태로 어느 때보다 무기력한 한 해다. 어느덧 방학은 빠르게 지나 2학기가 시작됐고 학생들은 개강을 맞이했다. 우리학교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외대학보는 이번 호에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문을 연 교내 상황을 기획기사로 실었다.

기획면에서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학교 얘기를 담았다. 지난 학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과 교수 양쪽 모두 시행착오가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학기엔 실시간 원격 강의의 기술적·행정적 측면을 보완했다. 'Hufs클라우드'와 같이 새로 시작하는 부분도 있다. 또한 이클래스의 서버를 더 큰 용량으로 이관했다.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 활동도 상당 부분 비대면으로 이어가고 있다.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당연했던 △동아리△단과대학 학생회△총학생회도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재학생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술의 진보는 계속되고 있다. 학술면에선 실용화를 앞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다뤘다. 블록체인 기술 중 모바일 신분증에 사용된 DID 기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에 힘입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사건을 사회면에 담았다.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와 의사·전공의 사이의 갈등으로 '의사파업'이 발생했다. 의사·전공의의 대규모 이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불씨를 더했다. 그러나 정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를 제외한 채 정책을 처리했다. 이는 의사파업이란 집단행동을 야기했다.

이번 해 2월, 코로나19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을 때 아무도 장기화를 예상하지 못했다. 할 수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코로나19의 여파는 예측보다 강력했다. 이제 사람들은 마스크가 없는 외출을 상상할 수 없고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만남도 줄인다. 대학교는 물론이고 △초등△중등△고등학교도 대면 등교를 피하고 비대면 수업을 이어나간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정상 작동한다. 이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정치△사회 모두 돌아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긴다. 원격 강의를 비롯한 비대면 소통 시스템이 모두에게 편한 방식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불편함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볼 시기가 생각된다.

조하영 부장 99young@hufs.ac.kr



코로나 19와 4차 산업혁명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조 2,902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절충의 형태를 갖춘 모습이다. 그런데, 왜 통신비를 지원할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비대면 활동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간 물리적 접촉이 줄어들면서 인터넷을 통한 활동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수년 전부터 언론과 산업계,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그리고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를 지칭한다. 쉽게 말하면 제조업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4차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증기기관의 발명을 1차 산업혁명으로 보고, 이후 내연기관의 발명과 확산을 2차 산업혁명, 반도체 개발에 따른 디지털 산업의 등장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등이 핵심 산업분야로 손꼽힌다. 대표적인 분야는 인공지능 분야인데 2016년 이세돌 기사가 인공지능 컴퓨터인 알파고(AlphaGo)와의 대국에서 4승 1패로 패배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미래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초연결성에 주목한다. 초연결성(hyper-connected)이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4차 산업혁명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접촉이 적어진 반면, 화상회의, 원격교육, 온라인 구매 등을 크게 늘려냈다. 이와 같은 비대면 활동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비대면 활동을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화상회의 방식을 습득해야 하며, 동료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축소하기 위해 조금 더 기민한 대응을 해야 한다. 비대면 실시간 강의를 수강할 경우 물리적 이동의 제약이 사라지거나, 대면접촉이 주는 시청각적 효과와 사회적 네트워킹 등을 일정부분 포기해야 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비대면 무인시스템, 온라인 쇼핑, 플랫폼기업, 간편결제서비스, 유연근무제 등을 거부감 없이 빠르게 정착시키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로 생활방식과 경제활동의 패턴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변화와 현상유지 사이의 긴장관계를 허물고 변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이 필연적으로 노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먼저 고용구조에 있어서는 자동화, 컴퓨터 연산기술의 확산은 사무행정직, 저숙련 노동수요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동인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더 커질 수 있다. 개인의 직무역량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에 비해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지식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에 있어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재택근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교육과 통신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은 재택근무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 장관 출신의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는 코로나19가 미국 노동자들을 4개 계급으로 재편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제1계급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원격근무자(the remotes)들이며,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이시는 이 계급의 비중이 미국 전체 노동자 중 35% 정도일 것으로 보았다. 제2계급은 물리적 접촉이 필요한 필수노동자들(the essentials), 제3계급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the unpaid), 제4계급은 잊혀진 노동자들(the forgotten)이다. 이와 같은 진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재택근무의 확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이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고용시장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파악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지를 준비해야하며, 공동체 차원에서는 비대면 활동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www.사사한줄토익.com

사회: 지난 1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정치: 제1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당명 개명

경제: 지난 10일, '카카오게임즈' 상장 첫날 단숨에 코스닥 시총 5위 기록

국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실험 부작용에 코로나19 백신실험 중단

문화: 지난 10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

십자말풀이

				①					②				
①													
								②					
③													
								④					
③													
								④				⑤	
								⑤					

- 가로**
 - 지난 학기 우리학교의 비대면 수업은 ○○○○와 실시간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다. (4면 참조)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정책은 일본의 '○○○○' 정책과 유사하다. (8면 참조)
 - 대학의 ○○○○, 적절한 방식은 무엇일까? (7면 참조)
 - 은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기술입니다. (9면 참조)
 - 직원이 헬리에게 흥분한 무니를 진정시켜 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크게 화를 낸다. (10면 참조)
- 세로**
 -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를 통해 비대면과 대면 방식이 병행됐다. (2면 참조)
 -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는 우리학교 ○○○○활동. (3면 참조)
 - 광기는 키로가의 핵심 ○○○으로 볼 수 있다. (6면 참조)
 - '공공 의대 후보생은 의료 전문가 및 ○○○○의 추천을 통해 뽑힌다. (8면 참조)
 - 교내 ○○○ 의식,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5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9_jina@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허지나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독창적인 감각을 지닌 최영은 C막걸리 대표를 만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복판에 최초로 1인 막걸리 양조장이 들어섰다. 그 주인공은 최영은 'C막걸리' 대표(이하 최 대표)다. 우리학교에서 네덜란드어를 전공한 최 대표는 벨기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홍콩에서 금융인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적 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막걸리를 직접 빚는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의 이력처럼 최 대표의 막걸리는 다채로운 색깔을 띠고 있어 애주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주의 새로운 맛을 선보이고 있는 최 대표(서양어 · 네덜란드어 99)를 만나보자.

발효조 계 연
용량 : 240
김정민 촬영
2020년 9월

Q1. 우리학교 네덜란드어과에 진학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생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중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특이한 언어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덜란드어△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 중에서 고민하다 당시 좋아하던 축구팀의 국적이 네덜란드였기에 네덜란드어과로 진학했습니다. 입학했을 때 과 내에서 '축구 좋아해서 네덜란드어과 온 애'로 화제가 됐어요.

Q2. 우리학교 졸업 후 벨기에에서 경영학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시 취업을 위해선 언어 학사 공부 후 경영학 석사 공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학부 시절 벨기에로 교환 학생을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곳의 대학원에 진학해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Q2-1. 유학할 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져 부담감이 컸습니다. 살던 동네에 동양인 자체가 적고 한국인이 많이 없었어요. 따라서 직장도 학교 모두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관련 문제가 생기면 다들 잘 찾아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하니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적 학생들에게 미움받기도 했습니다.

Q3. 경영인으로 활동하다 양조장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접 겪었던 다양한 해외의 문화를 우리나라 고유의 양조 문화와 접목해보고 싶단 생각에 창업하게 됐습니다. 이전의 벨기에 금융회사에선 구조조정 업무를 맡았는데요. 굉장히 고되고 미움받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동양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 홍콩과 싱가포르로 발령을 가기도 했는데, 일에 대한 피로도만 높아졌어요. 이에 우리나라로 돌아와 평소 좋아했던 문화예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술을 문화적으로 접근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에 있을 때부터 취미로 술을 꾸준히 빚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Q4. 네덜란드어를 전공하고 경영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창업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됐나요?

해외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일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창업 이후 제가 만든 막걸리는 '새로운 감각' 혹은 '혁신적'이란 평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맛과 향에 대한 독특한 감각은 외국어를 전공하고 해외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인으로 활동했으니 자연스레 사업 계획을 꼼꼼히 짤 수 있었어요. 혼자 하기 벅찬 시장 조사와 브랜드 분석 같은 어려운 일도 제때 익숙해서 잘 해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양조장의 용장식물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최 대표

Q4-1. 양조장은 일의 강도 때문에 대개 여럿이 운영합니다. 혼자 양조장을 운영하며 겪은 어려움이 있나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배달△양조△영업△판매 업무를 모두 혼자 하다 보니 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일정이 빡빡해 시간을 더 낼 수 없어 영업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몸의 피로 또한 말할 것도 없죠.

Q5. 우리나라 고유문화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옛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명확한 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역사학과 고고학을 전공

으로 삼고 싶을 정도였어요. 현실적인 이유로 꿈을 접었지만 우리나라 고유문화에 대한 갈증은 계속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Q5-1. 그중에서도 막걸리로 사업을 구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고유문화 중 막걸리가 창업 면에서 가장 가능성 있어 보였어요. 애주가이기도 하고 술을 빚었던 경험이 있어 익숙한 소재였습니다. 이를 문화적인 면으로 풀어 가면 사업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에 막걸리를 빚게 됐습니다. 원래 미술 관련 사업을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 미 그 분야는 포화 상태여서 업무를 내지 못했죠. 그러나 술은 소규모로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Q5-2. 막걸리는 동양의 와인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최 대표가 생각하는 막걸리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막걸리의 고유성이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쌀로 만든 탁한 술 중에 대중성을 가진 술은 막걸리밖에 없어요. 또한 다양한 재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막걸리를 만들 수 있던 점에서 흰 도화지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다채로운 C막걸리의 제품들

Q6. 레몬그라스, 카카오닙스 등 다양한 재료로 막걸리를 제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의 가치관을 '차별화'로 삼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쌀막걸리는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기에 제 브랜드를 대중에 각인시키려면 색다른 막걸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따라서 쌀 · 과일처럼 흔한 재료가 아닌 특이한 재료를 넣고자 △당근△카카

오닙스△케일 등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이런 다양한 재료는 독특한 풍미가 있는 수제 맥주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Q7. 막걸리 브랜드 대표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선 고정 소비자층을 만들고 회사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 이후엔 제 막걸리를 하나의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사업 계획으로 미술사를 관람객과 함께 돌아보며 각각의 미술 작품에 어울리는 술을 시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전 미술 시대에 등장한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며 우리나라 명인의 막걸리를 마시고, 팝아트 시대에 대량 생산된 미술 작품을 보며 그에 맞게 대량 생산되는 '장수 막걸리'를 마시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가 종식된다면 실행에 옮기고 싶어요.

Q7-1. 일 외의 삶에 대해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나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싶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 번 살듯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8.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학교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남이 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해보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업을 생각할 때 보통 요즘 뜨는 아이템을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 뜬단 건 이미 늦었던 듯입니다. 남이 해보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렵다면 기존의 것을 한 번 뜯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른 시각을 갖고 본다면 새로운 방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